이 문서는 무주군의 행정문서 입니다.

2016 올해의 관광도시 VISIT MUJU YEAR

순수비평문학의 선구자

김환태 문학관

http://art.muju.go.kr 568-802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46 Tel 063.320.5636 Fax 063.322.5670

일제 암흑기에 순수문학의 이론 체계를 정립하고 1930~1940년에 크게 활약한 문학평론가이다.
그는 경향문학과 계급주의 비평에 의해 정치성과 사상성으로 경직된 문단에서 순수문학의 옹호자로서 순수비평의 씨앗을 틔운 기수로 한국 문학비평사에 우뚝 섰다.
당시 그가 도전했던 문학의 과제는 정치에 예속되는 경향문학에 대한 배격을 소리높여 외친 순수 문학의 기수로 경향문학 배격에 중심을 두었으며, 동시에 당시의 일제 압기에 직진적인 표현은 할 수가 없었지만 장차 우리 문학이 친일 문학 일색으로 변모될 것을 예견하고 그에 대한 경계의 뜻을 담고 있었다. 그는 문학과 예술의 위대성을 확신하고, 정확한 미학의 기준을 말하고 실천함으로써 문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버팀목의 역할을 다했으며, 그가 남긴 문학적 유산은 오늘날의 민족문학을 확립하는 기틀이 되었다.

순수비평문학의 선구자

눌인 김환태

전북 무주군 무주면 읍내리 출생
(1909~1944)

김환태의 연보

1909
무주면사무소 직원이었던 김종원과 부인 고씨 사이에서 태어남

1922
전주고보에 입학하였으나, 1924년 일본인 교사를 쫓아내려는 항일운동에 연루되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고, 해제조치에서 제외되면서 1926년 자퇴함

1926
보성고등보통학교로 전학, 신소설[능라도]를 읽고 문학에 입지함

1928
일본 도시샤대학(同志社大學) 예과에 입학

1931
규슈제국대학(九州帝國大學) 법문학부 영문학과에 입학, 대학졸업논문 「문예비평가로서의 매슈 아놀드와 월터 페이터」

1934
규슈제국대학 영문과를 졸업
귀국 후 황해도 명신여중에서 1년간 교편을 잡음
「문예비평가의 태도에 대하여」발표
이어「예술의 순수성」, 「나의 비평태도」발표

1935
03 「신춘창작총평」 [개벽 3월호]
07 「문예시평-6월의 평론」 [조선문단 7월호]
12 「1935년 조선문단 회고」 [사해공론 12월호]
「올해년 문단 총관-창작개편」 [학등 12월호]

1936
구인회에 입회했고, 시문학과와 구인회 작가들과 교유하면서 카프의 공리주의 문학관을 반대하고 문학 비평의 독립성을 주장

1940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교사 (2년간 근무)

1943
폐앓이로 무학여자고등학교 사직 후 무주로 귀향

1944
5월26일, 35세로 사망

1989
[문학사상사] 「김환태 평론문학상」제정

2004
60주기 추모문집 「김환태가 남긴 문학유산」간행

나는 상징의 화원에 노는 한 마리 나비이고자 한다. 아폴로의 아이들이 가까스로 가꾸어 형형색색으로 곱게 피워놓은 꽃송이를 찾아 그 미에 흠뻑 취하면 족하다. 그러나 그때의 꿈이 한껏 아름다웠을 때에는 사라지기 쉬운 그 꿈을 말의 실마리로 얽어놓으려는 안타까운 욕망을 가진다. 그리하여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 소위 나의 비평이다. 따라서 나는 작가를 지도한다든가, 창작 방법을 가르쳐준다든가 하는 엄청난 생각을 감히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평의 기준이니 방법이니 하는 것도 또한 나에게는 소용되지 않는다.

김환태 『평단 전망』 中

김환태 대표적 문학 평론

- 문예비평가의 태도에 대하여
- 예술의 순수성
- 나의 비평태도
- 비평문학의 확립을 위하여
- 여(余)는 예술지상주의자
- 동향없는 문단
- 평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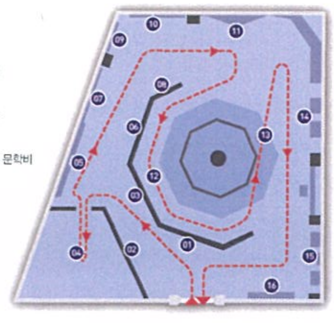
김환태 선생 결혼식 | 1936 | 김영진 기증
당대의 문인들이 함께하고 있다.

장남 영진, 장녀 인자
김영진 기증

도산안창호선생님의 결혼선물
1936 | 김영진 기증

김환태 문학관 관람 동선 안내

01 김환태의 문학정신
02 김환태 선생 어록 및 철학
03 비평의 정의와 단계
04 김환태 선생 영상실
05 문예비평이란?
06 김환태 선생 연보
07 출생과 성장기
08 박용철과의 교우
09 유학과 귀국 후 활동
10 졸업논문과 근대 문학
11 구인회
12 김환태 문예비평의 의의
13 꽃과 나비
14 고전문학을 읽는 즐거움
15 김환태 평론 문학상
16 김환태 문학제와 김환태 문학비



| 찾아오시는 길 |

서울 — 대전 — 금산 — 무주IC — 무주읍 — 최북미술관 · 김환태문학관
부산 — 대구 — 금산 — 황간IC — 영동 — 무주 — 최북미술관 · 김환태문학관
광주 → 88고속도로 → 거창 → 구천동 → 최북미술관 · 김환태문학관
전주 → 소양IC → 장수IC → 무주IC → 최북미술관 · 김환태문학관
남원 → 장계 → 안성 → 무주IC → 최북미술관 · 김환태문학관
김천 → 무풍 → 무주읍 → 최북미술관 · 김환태문학관
거창 — 구천동 — 무주읍 — 최북미술관 · 김환태문학관

2016 올해의 관광도시 VISIT MUJU YEAR

조선후기 화단의 거장

최북 崔北 미술관

muju 무주군 http://art.muju.go.kr

조선후기 화단의 거장

최 북 崔北

1712~1786(?) | 조선 후기의 화가

중국 산수의 형세를 그린 그림을 선호하는 당시의 경향을 비판하고 조선의 산수를 그린 진경산수화의 중요성을 강조, 대담하고 파격적인 조형양식을 이루어 조선후기 회화 발전에 이바지 하였다.

[호생관과 칠칠이]

최북의 초명은 식埴, 자는 성기聖器 또는 유용有用, 후에 이름을 북北으로 고치고 자는 칠칠七七이라 했다. 호는 성재星齋·기암箕庵·삼기재三奇齋이고, 만년에 호생관毫生館이라 하였으니 붓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본관은 무주인茂朱人이다.

출처 : 근역서화징 / 오세창

[최북의 일화]

심한 술버릇과 기이한 행동으로 많은 일화를 남겼는데, 금강산 구룡연에서 "천하의 명사가 천하의 명산에서 죽어야 한다."고 외치면서 못속으로 뛰어든 일화나, 어떤 벼슬아치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다가 최북이 응하지 않자 협박하려 하였으나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나를 저버린다." 하면서 스스로 한쪽 눈을 찔러 애꾸가 되었다는 일화는 최북의 기인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최북의 화풍]

최북은 꽃과 풀, 새와 짐승, 바위, 고목, 메추라기와 호랑나비를 잘 그렸고 특히 산수와 메추라기를 잘 그려 '최산수崔山水', '최순崔鶉'의 별칭이 있다.

최북 연보

붓 끝에서 태어나다

[毫生] 호생 : 붓으로 살아간다

- 1786 거리에서 동사함
- 1784 [고산구곡도]를 그림
- 1782 이단전과 남공철을 만나 교유함
- 1765 [송음관폭도]를 그림
- 1751 [매하쌍치도]를 그림
- 1749 원교 이광사와 함께 단양의 명승지를 유람하면서 산수화를 그림
- 1748 조선통신사의 수행원으로 이성린과 함께 부산포를 떠나 일본으로 출발
- 1732 [금강산전도]를 그림
- 1712 경주 최씨 집안의 계사 최상여의 아들로 태어남

게(蟹圖)

공산(空山)

괴석도(怪石圖)

산수도(山水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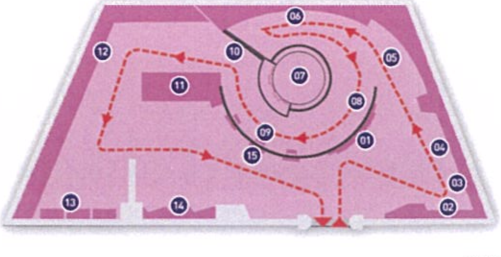
매조도(梅鳥圖)

메추리(鶉圖)

계류도(溪流圖)

설경산수도(雪景山水圖)

최북미술관 관람 동선 안내

| 관람시간 | 09:00~18:00
| 입장시간 | 관람 마감시간 30분 전까지 입장 가능
| 관람료 | 무료
| 휴관일 | 1월 1일, 매주 월요일, 명절 당일
**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관

- 01 조선후기 화단의 거장-최북
- 02 호생관과 칠칠이
- 03 최북의 생애
- 04 최북 연보
- 05 조선문화의 황금기
- 06 문헌속의 최북
- 07 최북-조선의 눈을 찌르다
- 08 조선회화의 흐름
- 09 최북의 작품세계
- 10 최북의 화풍
- 11 최북 작품 전시 I
- 12 최북 작품 전시 II
- 13 일화로 보는 최북의 재치
- 14 그림속의 화제
- 15 산수화, 문인화, 사군자